

# 극빈층 노인시설 '하얀 연꽃' 준공

## 보성 스님·김근태 장관·의원·본사주지 등 1000여명 '축하'



국내 최초로 불자와 시민들의 힘으로 건립된 노인전문요양시설 '하얀연꽃' (이사장 진옥이 7월 8일 준공했다(사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현지에서 열린 이

남과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김선미, 김성곤, 주승룡 의원 등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보성 스님은 법어를 통해 "하얀연꽃은 외로운 부처들이 더불어 사는 보금자리로 더욱 맑고 고운 연꽃을 피울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자"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진옥 스님은 인사말에서 "외로운 어르신을 부처님으로 모시려고 10년 전에 발원해 4년간의 공사로 하얀연꽃 한 송이를 겨우 피웠다"고 회고하고 "하얀연꽃을 일군 주인공은 바로 이자리에 계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라며 대중을 향해 삼배를 올렸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순수 민간자본으로 대규모 노인요양시설이 설립되기는 처음으로 함께 동참한 모든 이들이 부처이고 보살이다"며 "나눔의 정

신과 마음을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얀연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노인 가운데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극빈층(차상위 계층)을 위한 요양시설로 연건평 720평 지상 3층 건물로 1000여명이 거주할 수 있다.

요양시설은 2-5인실 주거공간 500여개와 목욕탕,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상담실, 식당, 회의실, 법당 등을 갖춘 초현대식 건물로 내부에 문턱을 없애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입소는 차매, 중풍 노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며 노후생활은 물론 입중, 장례, 제사에 이르기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자원봉사 및 후원문의 : (061)644-8877

글·사진/여수·이준엽 기자

### 불자 국악인 '예인회' 창립

예향의 도시 광주에 불교국악인불자모임 '예인회'가 창립됐다.

예인회(회장 이복순)는 7월 8일 광주 덕림사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기념공연을 펼쳤다.

한편 예인회는 창립에 앞서 지도법사 무이 스님(법사 주지)지도로 3개월 기초교리강좌를 마치고 매월 넷째 금요일 정기법회를 갖고 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 구리 천도사

## 모두가 주인인 공간



지난해 다녀온 남방불교 성지순례 때 태국 성지에서 단체촬영한 이복순 소속 스님들과 천도사 신도들.

경기도 지역에서 '포교 사각지대'로 불리는 구리시, 천도사(주지 천명)는 지역포교를 결심하고 포교당을 열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이곳에서 20년째 운영되고 있는 도심포교당이다. 1986년 중심가 수택동의 한 주택을 개조해 문을 연 이후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물론 사찰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천도사의 포교는 산사처럼 열려 있지 않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그러서일까. 10여 년간 공양미를 모아 사찰인근 소년소녀가장과 무의탁 노인에게 전달하는 등의 선행을 펼치면서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다.

천명 스님이 도심포교에 원력을 세운 이유는 중생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불교가 가까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 때문이었다. 또한 살아있는 생명을 살려주어야 할 방생이 물고기를 죽이는 방생으로 변질되는 등 구태를 벗지 못하는 불교계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다.

### '우리절 신도' 라는 고정관념 탈피, 열린 쉼터로

### 10년간 공양미 모아 인근 불우이웃에 보시

게나 열려 있는 절을 지향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절 신자' 라는 고정관념을 경계한다. 천도사 주지 천명 스님은 "스스로 마음자리를 찾는 불교 신자여야 우리 절에만 다녀야하는 신자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천도사는 이웃주민의 편안 쉼터도 많이 되기도 하고 불교를 이웃에게 회향하는 무대가 되기도 한다. 천명 스님에게는 도심포교의 원력을 실현하기 위한 정진터다.

모든 신자들은 언제든지 절에 올 수 있고 또한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다. 모두에게 열려있음으로써 모두가 주인이 되는 공간, 이것이 천도사의 포교방식이다.

복 짓는 불교를 실천하자는 방생의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 방생은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보이는 것은 불교내부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천명 스님은 지적한다. 금전을 중요시 하는 풍토가 자리잡을 만큼 불교가 세속화했다는 것이다.

천명 스님은 "여러 종교가 뒤섞여 있는 우리 사회는 종교경쟁시대를 맞고 있는데, 불교와 사찰이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어줄 때 비로소 불교는 생명력을 갖게 된다"고 강조한다.

박봉영 기자

## 해인사, 대적광전·법보전 목불 '뺨은꼴'

### 높이·얼굴 길이 등 같아... 동시대 제작 가능성



해인사 대적광전 비로자나불.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

최근 통일신라시대 목불로 판명된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상과 크기가 같고 모양도 비슷한 목조불상이 해인사 대적광전에도 1위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월 10일에 있었던 경남문화재위원회 회의의 조사에 따르면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불상은 높이 125cm, 얼굴 길이 27.4cm, 어깨 너비 63.5cm로 법보전 비로자나불상의 126cm, 26.7cm, 64cm와 거의 같다. 뿐만 아니라 지권인의 형태나 주름 등도 같아 두 불상이 쌍둥이라 봐도 무

방할 정도다.

이로써 법보전 비로자나불상에서 발견된 목사의 '대각간의 등신불과 오른편에 부인의 등신불을 2위 만드노니'에서 나머지 1위가 해인사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불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은 1996년 고려말 고승인 지공(指空) 스님의 계점 '문수최상승무생계법(文殊最上乘無生戒法)'과 14세기 복식 11점이 복장으로 발견돼 고려시대 불상으로 간주돼 왔다. 박익순 기자

## 사패산 터널 관통

### 사찰 수행환경 보존은 '숙제'

국립공원 훼손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이 7월 13일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사찰 수행환경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완공된 사패산 터널은 폭 18.8m, 길이 3997m의 편도 4차로 쌍굴 터널이다. 사패산 터널 공사는 착공 5개

월만인 2001년 11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2년만인 2003년 12월부터 재개됐고 지난 7월 13일 관통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의정부 흥법사를 비롯한 몇몇 사찰이 직간접적으로 수행환경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윤주옥 사무국장은 "사찰 수행환경 침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국립공원 환경훼손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 "자연과 인간은 하나" 강릉 현덕사 동식물천도제

강릉 현덕사(주지 현종)는 7월10일 등명낙가사 주지 청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동식물천도제 및 대웅전 상량식을 병행했다.

청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은 하나"라며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자연을 대할 때 우리도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덕사 주지 현종 스님은 "부처님이 모든 다른 동물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듯 생명은 그 자체로 고귀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원문 낭독과 조류방생이 끝난 뒤



동식물천도제에서 살풀이춤을 공연하는 모습.

하유 스님의 북춤, 춤사랑예술단(단장 박태숙)의 살풀이춤 추모공연이 진행됐다.

김원우 기자

# 제18기 전생·빙의/영치유법 특별강좌!

전생(前世),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최면-전생·빙의/영치유법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 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교육내용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빙의 치유법	● 빙의 진단법 → 빙의명확인 → 영가와의 대화 → 영가천도 → 천도확인 → <b>재진행 방지 영치유법</b> ● 악령제압법, 제3자를 통해 빙의된 사람의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를 통한 <b>원격제압 천도법</b> ● 신도가 자기 몸 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고 영가가 떠나는 것을 확인할 수 도 있다.
전생요법	● 전생과 현생은 천륜보다 깊은 연결고리로서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여 현재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으로 통의 단서를 찾아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 한다.
정통사주명리학	● 사주로 조상 영가, 빙의 보는 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 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 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서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 "군검쟁이".....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유도법, 최면 심리치료, 자율훈련, 최면 명상법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 증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최면 전망법, 자연 치유력 활성화법 등

**빙의(憑依)란?** 흔히 귀신들림으로 말해지며 영혼이나 강력한 힘, 절대적 신의 힘이 사람에게 침투하여 삶의 전반이나 특정 중상에 영향을 주고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없다", "누군가 내 머리속에서 뭐라 얘기하는 것 같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등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한 행동, 과벽, 정서불안,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환청이나 환각, 악몽, 가위눌림 등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빙의 영가의 생전 질병이나 사고 부위에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세계 보건기구(WHO)국제 질병 분류에는이를 포제션(Possession)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원인 모를 불임시에도 낙태 영가를 의심해봐야 한다.

**본 강좌 개강** 8월 4일(매주 목요일) 오전10시~18시까지 7회 과정

- ▶ 신청요령 : 전화접수 및 방문신청
- ▶ 교육비 : 200만원
- ▶ 입금계좌 : 조흥은행 591-01-008086
- ▶ 예금주 : 한국의식개발원

교육이수 후 무료 재수강 및 지속적인 자문지원

**통신교육 방식**  
▶ 전생·빙의/영치유 전체교육내용을 실황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를 매주 1회(2시간용 3개씩)우송(7회과정 비디오 테이프 총 20개)  
▶ 실습능력 점검 및 질의응답 등 보충교육을 위해 1회 분원에 출석수업  
▶ 특전:수료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한국전생빙의연구회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 교육비 : 200만원

원장 상담학 박사 임재형  
한국생활최면심리학회 회장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한국지유학회 대학원 겸임교수  
SBS백만불 미스터리, V계상 속으로, KBS 무한지대Q, MBC TV중중나라운세상, iTV,CMB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  
공무원 연수원, 기업체 등에서 강의

주최 : 한국전생·빙의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is114.com

전화 : (042) 255-0734-5  
주소 : 대전시인하동충촌 청운빌딩 (2층 본원 강의실)대전역에서 5분거리  
홈페이지 : www.hypnosis114.com

무료공개강좌  
8월 1일  
오후 1시~4시까지

\* 본 교육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거나 1만원 송금하시면 공개강좌 비디오 및 안내 자료를 발송하여 드립니다.